

# 고양 사랑방

고양시민 및 소식지 독자분들의  
소중한 의견에  
더 귀 기울이겠습니다!

## 시민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

### • 원고종류

수필·공트·체험수기·기행문·독후감·사진·  
만화 등 제한 없음

### • 원고분량

A4 용지 1장 이내(시·만화 등은 적정 분량)

### • 원고마감

※ 보내주신 작품의 오타, 비문 등은 수정  
될 수 있습니다.

수시 접수

\* 채택되신 분은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  
내드립니다.

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### • 보낼 곳

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

(주교동)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

<고양소식> 담당자

### • E-mail gysosic@korea.kr

### • 고양시청 홈페이지

www.goyang.go.kr

(늘푸른고양/시정소식지)

### • 페이스북

www.facebook.com/goyangcity

## 9 월 호 독 자 후 기



### 이동렬

‘고양시로 떠나는 야간관광’은 행주산성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하고 역사의 발자취  
체험 등을 통해 행주의 밤에 빠져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. 코로나19로 지치고  
힘든 몸에 활력을 되찾아줄 것만 같습니다.



### 이승렬

고양시는 예로부터 청백리 정신이 깃들어 있었고, 김종순 선생의 청백리 정신은  
현시대에도 주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.

## 9 월 호 정 책 퀴즈 당첨 자

### 김승중, 김영곤, 오정은, 조아라

1. '□□□□□□' 조성 사업은 건물을 짓는 행위보다, 건물에 무엇을  
담고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.
2. □□□□□□□□는 2008년부터 진행되어온 고양시의 대표 문화  
행사로 거리극, 무용, 서커스, 공중 퍼포먼스, 불꽃 공연 등 다양한  
장르의 거리예술을 아우르는 축제다.

정답 : 배다리 사랑 나눔터, 고양호수예술축제



## 울화 잠재우기

글 권수현(일산동구)

요즘, 금님과 저는 서로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  
고 있습니다. 둘 다 일반적이지 않은 성격들이라  
서로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경계선을 이미 잘  
알고 있지요. 열 살이 되니 이 녀석도 이제 좀 알  
고 있습니다. 엄마가 변신하는 타이밍을.

비단 저희만 고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닐 테지  
요. 1년이 넘도록 가족 간의 물리적 거리두기는  
사라진 지 오래되었고, 각자 하던 일을 강제적으  
로 멈추고 있으니 문득문득 변신 후의 모습이 나  
타나고는 합니다.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잠  
시 멈춥니다. 정말 모든 것을 멈춥니다. 그리고 금  
님에게 말하곤 합니다.

“금님아, 지금 더 이야기하면 엄마가 화를 못 참  
을 것 같아. 5분 동안 엄마를 그냥 내버려 뒀. 5분  
뒤에 다시 얘기하자. 네가 그동안 뭘 하든 엄마는  
상관 안 해. 지금 나한테 5분이 필요한 거야.”

그리고 나서 저는 잠시 자리를 피합니다. 기본 본  
능 중 배고플 때 먹고, 화장실이 급할 때 화장실에  
가는 것 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터라 울화의  
본능은 이렇게 잠시 가뒀습니다. 5분여 뒤, 금님이  
와 이야기를 나눕니다. 이런 상황이 벌어진 원인  
에 대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의 해결에 대해 이야  
기를 나눕니다. 붉으락푸르락하던 금님도 한결  
차분해진 모습으로 대화를 이어 나갑니다. 좋아하  
는 메뉴를 식사시간에 맞춰 먹거리를 먹으며 그날  
의 기분을 잠재웁니다(이래서 떡볶이가 매일 필요

한가 봅니다). 대화가 가능해서 정말 다행입니다.

저녁 8시가 되면 각자 씻고, 저는 금님이 양치 검  
사를 끝으로 그날의 엄마업무를 마칩니다. 금님  
이는 금님이 방으로, 저는 제 방으로 들어옵니다.  
선물로 받은 향초를 켭니다. 가만히 바라봅니다.  
‘멍’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  
거나, 스쿼트를 합니다. 그렇게 1시간 정도를 꿈  
지락거리다 다시 향초를 불을 바라봅니다. ‘멍’하  
다가 오늘 하루를 생각해봅니다. 잘했고 못 했고  
의 반성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고, 이 정  
도면 괜찮다고 하루를 정리합니다. 금님이 방에  
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립니다. 킬킬 웃는 소리  
도 들립니다. 책이 제법 재미있나 봅니다. 다시 또  
향초를 바라봅니다. 몸의 긴장이 이제 좀 풀어집  
니다. 오늘의 울화도 아주 잘 희석되었습니다.

새벽에 잠을 깨서 거실에 잠시 나오면 종종 제 방  
문 앞에 쪽지가 있습니다. 금님이 스스로 엄마에  
게 더 하고픈 말이 있는 날은 내용의 밝음과 어둠  
에 상관없이 쪽지가 놓여 있습니다. 새벽에 그 쪽  
지를 읽으면 코가 시큰해지는 날도 있고, 웃음이  
나와 빵 터진 날도 있습니다. 그다음 날 아침이 되  
면 언제 그랬냐는 듯 쪽지는 모른 척합니다. 금님  
이가 부끄러워하기 때문에. 여전히 귀여운 녀석  
입니다. 다행입니다. 아직 귀여워서!!!

※ 글 속에 등장하는 ‘금님’은 애칭입니다.